

# 九鍼의 형태와 용도에 대한 문헌연구

손인철<sup>1,2</sup> · 권오상<sup>1</sup> · 김유리<sup>1</sup> · 안성훈<sup>1,2</sup> · 김재효<sup>1,2</sup>

<sup>1</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sup>2</sup>한국전통의학연구소.

## Literature Study on the Conformation and Application of Nine Classical Needles

In-Chul Sohn<sup>1,2</sup>, O-Sang Kwon<sup>1</sup>, Yu-Lee Kim<sup>1</sup>, Sung-Hun Ahn<sup>1,2</sup>, Jae-Hyo Kim<sup>1,2</sup>

<sup>1</sup>Dept. of Acupoint & Meridia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Abstract

**Objective** : Nine classical needles have been recorded in oriental medical classics as a diversified instrument for acupuncture to treat patients with various symptoms. Recently, it has suggested that doctors didn't make full use of acupuncture and that poor understanding of the nine needles has caused the lack of usage.

**Methods** : It has studied bibliographically about the conformation including a length & shape and application & usages of the nine classical needles presented in oriental medical classics.

**Results** : *Chamchim* (shear needle) has 1.6 chon (寸) length, sharp apex treating fever in the head and trunk; *Wonchim* (roun-pointed needle) has 1.6 chon, eggshaped apex treating disease of flesh by massaging with it; *Sichim* (spoon needle) has 3.5 chon, thick body with round sharp apex treating weakness of Qi; *Bongchim* (lance needle) has 1.6 chon, a triangled apex treating chronic disease with bleeding; *Pichim* (stiletto needle) has 4 chon, razor sharp applying to surgery of big pus; *Wonlichim* (round-sharp needle) has 1.6 chon, thin body, sharp apex treating acute arthralgia syndromes; *Hochim* (filiform needle) has various lengths which treats various disease of meridians and organs; *Jangchim* (long needle) has 7 chon, sharp apex treating chronic arthralgia syndromes in deeper place of body; *Daechim* (large needle) has 4 chon, nail like apex applying to excrete artheredema in joints.

**Conclusions** : The conformation of nine classical needles has been changed from those recorded in oriental medical classics since it was developed. However, the usage of nine classical needles has remained the sam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ntrinsic attribute of the nine needles has preserved even though the conformation of nine classical needles has changed.

**Key words** : Nine classical needles, Acupuncture, Conformation, Application

## 1. 九鍼의 의의

九鍼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형태와 용도

를 가진 鍼具의 총칭으로, 各異한 형태와 용도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상응관계를 밝히는 天地의 大數에 근거하여 九鍼<sup>(1)</sup>이라 하였다.

『靈樞·九鍼論』<sup>(2)</sup>에는 “九鍼이란 天地의 大數 이니, 一에서 시작하여 九에서 끝난다. 그러므로 一은 天을, 二는 地를, 三은 人을, 四는 時를, 五는 音

· 교신저자 : 손인철,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번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63-850-6448, Fax. 063-857-6458,  
E-mail: ichsohn@wku.ac.kr

· 이 논문은 원광대학교 2009년도 교내지원(손인철)에 의하여 수행

(1) 손인철, 김유리, 안성훈, 김재효. 醫宗金鑑 刺灸心法要訣 중의 九鍼歌를 통해 본 九鍼의 이해. 한국전통의학지. 2010 ; 18(2) : 133.

(2) 素問·靈樞經·九鍼論. 2011.03.09 서울 : 成輔社. 1980 : 574. “一以法天, 二以法地, 三以法人, 四以法時, 五以法音, 六以法律, 七以法星, 八以法風, 九以法野;”

을, 六은 律을, 七은 星을, 八은 風을, 九는 野를 法 받았다.”하였다. 이는 九鍼이 단지 아홉 가지 종류의 침 종류가 아니라 一에서 九까지의 天地의 大數에 근거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九鍼을 각종 질병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적절히 응용하면, 인체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九鍼은 종류에 따라 그 형상을 달리고 또 상이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상에서 여러 가지 질병치료를 두루 사용되었는데, 인체의 음양을 조절하고, 경락을 소통시키고, 기혈순환을 조절하여 통증을 제거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등 각각의 종류마다 주치의 특이성을 가진다.

『靈樞·官鍼』<sup>(3)</sup>에서는 “九鍼에는 각각 마땅한 바가 있으며, 길이와 크기에 따라 각기 사용되는 바가 있다”고 하면서, “病이 피부에 있고, 질병 발생이 특정한 부위에 국한 하지 않을 경우에는 鑱鍼을 사용하고, 病이 皮下의 分肉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員鍼을 써서 환부를 누르거나 문질러서 혈기를 원활하게 유통시키며, 病이 經脈과 絡脈에 있어서 완고(頑固)한 통비(痛痺)가 있으면, 鋒鍼을 써서 瀉血한다. 病이 血脈에 있고, 脈氣가 虛한 경우에는, 補해 주어야 하므로 鍤鍼을 사용하며, 病이 大膿이 된 경우에는 鈹鍼으로 절개하여 排膿한다. 病이 痺氣가 폭발하여 생긴 경우는 圓利鍼으로 자침하며, 病이 만성인 痛痺의 경우에는 毫鍼을 사용한다. 또한 병이 깊어 잠복한 경우에는 長鍼을 사용하며, 病이 水腫으로 인하여 관절이 부어있는 경우에는 大鍼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九鍼은 각각 대소와 장단의 형태에 따라 용도의 차이가 있는 바, 九鍼을 응용할 때에는 九鍼이 가지는 특

성과 증상의 특징에 따라 적절히 운용해야 원하는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구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병을 적절히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질병의 원인 및 증상에 따라 용도에 따른 九鍼의 선택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靈樞·九鍼十二原』<sup>(4)</sup>에는 “鑱鍼은 鍼의 머리 부분이 크고 침 끝이 예리하므로 얇게 찢러 表層의 邪氣를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圓鍼은 침 끝이 계란처럼 둥글어 分肉사이를 안마하는데 사용하며 肌肉을 손상시키지 않고 分肉의 사기를 소실시킨다. 鍤鍼은 끝이 기장이나 좁쌀의 끝처럼 둥글어 經脈을 자극되 肌肉을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正氣가 이르게 한다. 鋒鍼은 침 끝이 뾰족한 삼각으로 되어 있으며, 오래된 고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鈹鍼은 끝이 칼날처럼 예리하여 膿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員利鍼은 침 끝이 말총처럼 둥글고 예리하며 鍼身이 약간 굵은데 暴氣의 치료에 사용한다. 毫鍼은 침 끝이 아주 가늘어서 가볍게 자침 후 잠시 유치하여 정기가 길러지게 하고, 痛痺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長鍼은 침 끝이 예리하고 침의 몸통이 길다. 오래된 痺症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大鍼은 끝이 부러진 대나무처럼 날카롭고 날이 약간 둥글어 관절에 水氣가 있는 질환에 사용하니 이것이 구침의 전부이다.”고 하였다.

근래 일회용 침의 등장으로 鍼 等 치료도구의 위생관리 면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반대로 한방 침구임상에서 치료도구의 제한된 사용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한의학 치료영역의 확대의 차원에서 크게 검토·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에 저자는 九鍼의 다양한 제작과 활용방법을 모색해보기 위해 九鍼의 종류별 특징과 형태 및

(3) 楊維傑. 『黃帝內經 譯解 (靈樞)·官鍼 第七』. 위의 책 : 75. “九鍼之宜, 各有所爲, 長短大小, 各有所施也, 不得其用, 病弗能移. 疾淺鍼深, 內傷良肉, 皮膚爲癢; 病深鍼淺, 病氣不寫, 支爲大膿. 病小鍼大, 氣寫太甚, 疾必爲害; 病大鍼小, 氣不寫泄, 亦復爲敗. 失鍼之宜, 大者寫, 小者不移. 已言其過, 請言其所施”

(4) 楊維傑. 『黃帝內經 譯解 (靈樞)·九鍼十二原 第一』. 위의 책 : 8. “鑱鍼者, 頭大末銳, 去寫陽氣. 員鍼者, 鍼如卵形, 揩摩分間, 不得傷肌肉, 以寫分氣. 鍤鍼者, 鋒如黍粟之銳, 主按脈勿陷, 以致其氣. 鋒鍼者, 刃三隅, 以發痼疾. 鈹鍼者, 末如劍鋒, 以取大膿. 員利鍼者, 大如毫, 且員且銳, 中身微大, 以取暴氣. 毫鍼者, 尖如 毫喙, 靜以徐往, 微以久留之, 而養以取痛痺. 長鍼者, 鋒利身薄, 可以取痺痺. 大鍼者, 尖如挺, 其鋒微員, 以寫機關之水也. 九鍼畢矣”

용도를 한의학의 원전이라 하는 『黃帝內經』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 II. 九鍼의 종류별 형태와 용도

### 1. 鑱鍼(참침)

『靈樞·九鍼論』<sup>(5)</sup>에는 “一은 天을 본받았다. 天은 陽이니, 五臟 중에 天에 相應하는 것은 肺이다. 肺는 오장육부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그 덮개처럼 臟腑를 위에서 덮고 있으니, 그 형상이 하늘에 상응하고 皮毛에 相合하여 또한 陽 즉 外表에 속한다. 그러므로 鑱鍼으로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鑱鍼의 鍼頭가 크고 鍼尖은 예리해야 하니, 그리해야 鍼이 깊이 肌肉에 까지 刺入할 수 없어서 皮膚의 表에 있는 邪氣를 排出시키는 것이다.”하였다.

#### 1) 形態

『靈樞·九鍼論』<sup>(6)</sup>에는 “첫 번째, 鑱鍼은 巾鍼<sup>(7)</sup>에서 法하여, 鍼의 몸통은 크나 침 끝 약 1寸半에서부터 점차 銳利해지고 침의 길이는 모두 一寸六分이다.”고 하였다.

鑱鍼의 길이는 1寸六分(대략 42mm)이고, 말단은 1分으로 예리하다. 곧 鍼頭가 크고 鍼尖은 날카롭고 뾰족하여 마치 화살촉과 같은 모양을 띠었다. 前頭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深刺는 제한적이고 淺刺에 적절히 활용된다.

### 2) 用途

『靈樞·九鍼論』<sup>(8)</sup>에는 “熱邪가 머리와 몸에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鑱鍼은 淺刺하여 解表退熱하고 陽邪氣를 瀉하여 제거하기 때문에 熱이 頭身에 있는 것을 치료한다. 『靈樞·九鍼論』<sup>(9)</sup>에는 鑱鍼의 사용법에 대해 “깊숙이 자침하지 않도록 하여 양기가 빠져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돌침(砭石)에서 진화 발전한 것으로 보며, 熱病放血에 사용된다.

鑱鍼은 얇게 자침하여 사혈함으로써 사기가 체표에 있는 열병이나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靈樞·官鍼』<sup>(10)</sup>에서는 “병이 피부에 있고, 그 부위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鍼의 頭部가 膨大하고 말단이 예리하여, 주로 淺刺에 사용되며, 열병과 피부병을 치료한다.

### 2. 員鍼(원침)

『靈樞·九鍼論』<sup>(11)</sup>에는 “二는 地를 본받았다. 인체에서 地에 상응하는 부위는 肌肉이기 때문에 肌肉을 調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鍼身은 圓柱形이며, 그 鍼尖은 橢圓形이다. 이 鍼은 刺入하지 않고, 그것으로 肌肉의 分肉間을 按摩함으로써 肌肉을 상하지 않고 邪氣를 排出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상을 하고 있다. 만약 肌肉을 損傷하면 肌肉의 血氣가 消盡될 우려가 있다.

#### 1) 形態

(5)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75. “一者天也, 天者陽也, 五藏之應天者肺, 肺者五藏六府之蓋也, 皮者肺之合也, 人之陽也. 故爲之治鍼, 必以大其頭而銳其末, 令無得深入而陽氣出.”

(6)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80. “一曰鑱鍼者, 取法於巾鍼, 去末寸半, 卒銳之, 長一寸六分”

(7) 巾鍼 : 古代 生活用 鍼具의 一種이다. 巾은 頭巾을 가리키는 말로, 형겼 따위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물건을 총칭한다. 巾鍼은 크기가 작아서 비단 두건(巾帛)을 고정시킬 때 사용했던 것으로 鑱鍼의 형태와 비슷하게 생긴 古代의 鍼을 말한다.

(8)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앞의 책 : 580. “主熱在頭身也”

(9)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75. “令勿得深入而陽氣出”

(10) 『黃帝內經譯解(靈樞)·官鍼 第七』. 위의 책 : 76. “病在皮膚無常處者, 取以鑱鍼于病所”

(11)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76. “二者地也, 人之所以應土者肉也. 故爲之治鍼, 必循其身而員其末, 令無得傷肉分, 傷則氣得竭.”

『靈樞·九鍼論』<sup>(12)</sup>에 “員鍼은 絮鍼<sup>(13)</sup>에서 法하여, 그 鍼身은 원주형을 띠며, 그 끝은 둥글고 계란형이다. 길이는 1촌6분(대략 42mm)으로 분육의 기를 뺄 때 사용한다.”고 하였다.

## 2) 用途

『靈樞·官鍼』<sup>(14)</sup>에 “병이 分肉 間에 있으면 병소를 원침으로 취할 것”이라 하고, 『靈樞·九鍼十二原』<sup>(15)</sup>에서 “員鍼은 근육사이를 마사지 하는데 사용하며,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고 사기를 제거한다.”고 하였고, 『靈樞·九鍼論』<sup>(16)</sup>에는 “분육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분육이 손상되면 氣가 고갈된다.”고 하였다. 員鍼은 鍼尖이 계란처럼 둥글기 때문에, 分肉간에 사기가 울체되었을 때, 肌肉이나 肌肉과 關節사이를 문질러 氣血을 이르게 하고, 肌肉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전신에 고루 사용한다.

員鍼은 체표를 마사지 하여 주로 근육의 질병을 치료 도구로서, 『靈樞·九鍼論』<sup>(17)</sup>에는 “주로 分肉 사이의 氣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員鍼은 혈위를 가볍게 마사지하여 肌肉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 3. 鍤鍼(시침)

『靈樞·九鍼論』<sup>(18)</sup>에 “삼은 人을 본받았다. 人體가 영위되는 근원을 찾는다면 그것은 모두 혈맥에

의존한다.” 이 혈맥의 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침이 鍤鍼이다. 鍤鍼은 黍粟의 취법을 사용한다. 鍤鍼의 몸통은 굵고 鍼尖은 圓形이며, 皮膚에 刺入하지 않고 다만 經脈이나 絡脈을 누르기 위한 형상을 하고 있다. 이때 너무 세게 눌러서 血脈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주로 經脈을 안마하듯 가볍게 눌러서 經氣를 소통시켜 邪氣를 배출시킨다.

### 1) 形態

鍼身이 크고 둥글어 기장과 좁쌀의 예리함을 본떴는데, 『靈樞·九鍼論』<sup>(19)</sup>에 “鍤鍼은 黍粟의 예리함에서 그 법을 취하여, 길이는 3촌5분(대략 85mm)이다.”고 하였다. 黍粟之鍤는 둥글면서 약간 뾰족한 것이다. 鍼身은 크고 끝은 둥글고 예리하여, 경맥을 안마하되 침이 肌肉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正氣를 소통시키고 邪氣만 빠져나오도록 한다.

### 2) 用途

주로 經脈을 안마함으로써 경맥의 병과 열성병을 치료한다. 『靈樞·官鍼』<sup>(20)</sup>에는 “病이 血脈에 있어서 맥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법을 써야 하는데, 鍤鍼으로 井·滎穴을 취한다.”고 하였고, 해야 할 경우에는 各 經의 五俞穴을 취한다.” 하였고, 『靈樞·熱病』<sup>(21)</sup>에서는 “열병으로 머리가 아프거나...코피 등의 증상에는 제 3침인 鍤鍼으로 치료한다.”고

(12)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같은 책 : 580. “二曰 員鍼, 取法於絮鍼, 箝其身而卵其鋒, 長一寸六分, 主治分間氣”

(13) 絮鍼은 古代 生活에서 사용하던 바늘로, 서(絮)는 솜을 가리킨다. 침의 넓이가 크고 옷을 꿰맬 때 사용한다. 『靈樞·九鍼論』에 원침 봉침 모두 서침을 따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二曰 員鍼, 取法於絮鍼, 四曰鋒鍼, 取法於絮鍼)

(14) 『黃帝內經 譯解(靈樞)·官鍼 第七』. 앞의 책 : 76. “病在分肉間, 取以員鍼于病所.”

(15) 『黃帝內經 譯解(靈樞)·九鍼十二原 第一』. 위의 책 : 8. “員鍼者, 鍼如卵形, 指摩分間, 不得傷肌肉, 以瀉分氣”

(16)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같은 책 : 576. “令無得, 傷肉分, 傷則氣竭”

(17)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같은 책 : 580. “主治分間氣”

(18)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같은 책 : 576. “三者人也, 人之所以成生者血脈也. 故爲之治鍼, 必大其身而員其末, 令可以按脈勿陷, 以致其氣, 令邪氣獨出.”

(19)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같은 책 : 580. “鍤鍼, 取法於黍粟之銳, 長三寸半,”

(20) 『黃帝內經 譯解(靈樞)·官鍼 第七』. 앞의 책 : 76. “病在脈, 氣少當補之者, 取之鍤鍼于井滎分輸.”

(21) 『黃帝內經 譯解(靈樞)·熱病 第二十三』. 서울 : 成輔社. 1980 : 229. “熱病頭痛, 顛顛, 目脈痛, 善衄, 厥熱病也, 取之以第三鍼”

하였고, 『靈樞·九鍼論』<sup>(22)</sup>에 “주로 按壓, 取氣하여 邪氣를 排出한다”고 하였다. 침봉이 조(粟)처럼 둥글어서 소아와 허약자를 안마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鍤鍼은 경맥과 경혈을 마사지 하는데 사용하는 침으로서, 질병 치료에 사용할 때에는 적당한 힘을 가하여 피부 속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鍤鍼은 침체가 굵고 鍼尖이 무디어 血脈病과 熱病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 4. 鋒鍼(봉침)

『靈樞·九鍼論』<sup>(23)</sup>에는 “四는 時를 본받았다. 時는 四時의 八風이 邪氣로 되어 經脈이나 絡脈 속에 깃들어 頑固한 병이 생긴 경우에, 이 邪氣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鍼이다. 이 鋒鍼은 鍼身이 둥글어 圓筒形이며 鍼尖은 銳利하여 鋒(칼날)처럼 되어 있다. 이 鍼으로 熱을 瀉하기 위하여 瀉血하면 頑固한 고질병도 낫는다.”고 하였다.

##### 1) 形態

鍼身은 대롱 같고 끝은 날카로우며 絮鍼을 본떴는데, 길이는 1촌6분이다. 『靈樞·九鍼論』<sup>(24)</sup>에는 “鋒鍼은 絮鍼에서 법을 취하여, 침신은 圓筒形이고, 그 末은 칼날처럼 예리하며, 長은 一寸六分이다.”고 하였고, 『靈樞·九鍼十二原』<sup>(25)</sup>에는 “세모서리가 칼처럼 되어서 고질병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이 鍼은 鍼身이 길이가 원주형이고, 鍼尖은 鋒이 예리한 삼각형으로 삼면이 칼처럼 예리하다. 刺絡

하여 瀉血鍼으로 사용한다.

##### 2) 用途

주로 癰熱에 이를 사용하여 출혈한다. 『靈樞·官鍼』<sup>(26)</sup>에는 “病이 經絡에 있어 癰痺가 되었을 경우에는 鋒鍼으로 취한다.”하고, 『靈樞·九鍼論』<sup>(27)</sup>에는 “주로 癰腫과 熱病에 사혈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鋒鍼은 刺絡防血하여 그 熱을 瀉하게 하므로써, 능히 고질병의 근본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침체가 둥글고 三面이 칼날로 되어 있어서 근대의 三稜鍼과 모양이 비슷하다. 外科에서 고름을 빨 때 사용한다.

#### 5. 鈹鍼(피침)

『靈樞·九鍼論』<sup>(28)</sup>에는 “五는 音을 본받았다. 五音은 角徵宮商羽의 오음계이며, 五란 한가운데를 말한다. 一은 子, 九는 午, 즉 陰과 陽의 中間인 五는 陰陽寒熱이 서로 싸우는 곳이다. 人體에 寒熱이 서로 싸워 兩氣가 相搏하면 합쳐져 癰膿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때에 사용하는 鈹鍼은 鍼尖이 칼날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切開하여 大膿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 1) 形態

끝이 칼끝처럼 되어 大膿을 제거한다. 침의 넓이는 2分半(약 0.25mm)이며, 길이는 4寸(약 100mm)이다. 『靈樞·九鍼論』<sup>(29)</sup>에는 “鈹鍼은 劍鋒에서 法

(22)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앞의 책 : 580. “主按脈取氣, 令邪出”.

(23)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77. “四者時也, 時者, 四時八風之客于經絡之中, 爲癰病者也, 故爲之治鍼, 必審其身而銳其末, 令可以寫熱出血, 而癰病竭.”

(24)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같은 책 : 580. “鋒鍼, 取法於絮鍼, 審其身, 鋒其末, 長一寸六分”

(25) 『黃帝內經 譯解(靈樞)·九鍼十二原 第一』. 위의 책 : 8. “鋒鍼者, 刃三隅, 以發癰疾”

(26) 『黃帝內經 譯解(靈樞)·官鍼 第七』. 위의 책 : 76. “病在經絡癰痺者, 取以鋒鍼”

(27)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앞의 책 : 580. “主癰熱出血”

(28)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77. “五者音也, 音者, 冬夏之分, 分於子午, 陰與陽別, 寒與熱爭, 兩氣相搏, 合爲癰膿者也. 故爲之治鍼, 必令其末如劍鋒, 可以取大膿.”

을 위하여 廣은 2分半이고, 長은 四寸이다”이라 하여 이 침의 길이는 4촌이요, 넓이는 2分半으로, 침 끝이 칼처럼 예리하다. 鍼의 下端이 寶劍形이며, 兩面に 刀(刀)이 있다.

## 2) 用途

**鉞鍼**은 끝이 칼처럼 생겨서 深部의 고름을 뺄 때 사용한다. 『靈樞·官鍼』에는 “病으로 몹시 화농한 경우에는 鉞鍼으로 치료한다.”하였고, 『靈樞·九鍼論』에는 “주로 큰 癰膿이 化膿한 것과 寒熱 두氣가 다투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靈樞·四時氣』<sup>(30)</sup>에는 “徒疔라고 하는, 붓고 속에 물이 피어 있는 병에는 먼저 배꼽아래 3촌 부위(關元)를 취하여 鉞鍼으로 침을 놓은 후, 속이 빈 대롱과 같은 침으로 해당 부위에 침을 놓아 고름을 빨아내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침을 놓아 고름을 모두 빼내야 한다.”고 하였다.

**鉞鍼**은 중기를 절개하여 고름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鍼으로서 중기가 완전히 익었을 때 사용해야 한다. 鍼을 사용할 때에는 과도한 힘을 가하여 너무 깊게 절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6. 員利鍼(원리침)

『靈樞·九鍼論』<sup>(31)</sup>에는 “六은 律을 본받았다. 六律은 육률육려의 음양의 음률로서, 사시의 음양을

조화시키는 것이며, 十二經脈에 대응한다. 虛邪가 經絡에 침입하여 暴痺가 되었을 때 이 員利鍼으로 치료한다. 이 鍼은 鍼尖이 馬尾毛의 크기로서, 끝이 약간 무디게 뽕족하고, 鍼體의 중간부분이 좀 굵게 되어 있어서 급성질환에 사용된다.”하였다.

### 1) 形態

침체의 길이는 1촌6분(약 42mm)이고, 침두는 말총처럼 둥글면서 예리하고 가운데 부위가 볼록하며, 침체는 약간 가늘다. 『靈樞·九鍼論』<sup>(32)</sup>에는 “員利鍼은 鼈鍼(이침)<sup>(33)</sup>에서 法을 취하여 그 末이 약간 크고 鍼身이 오히려 적어 깊이 자침할 수 있다. 長은 1寸6分이다.”라고 한 바, 員利鍼은 형태가 馬尾와 같이 가늘고, 침침은 둥글면서 뽕족하다. 끝이 약간 크고 鍼身은 약간 작다.

鍼體의 말단을 피부 속으로 얇게 찢러 넣어 가볍게 비비면서 침이 질병이 소재한 부위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심부조직에 있는 痺氣와 邪氣를 제거한다. 『靈樞·九鍼論』<sup>(34)</sup>에는 “員利鍼은 깊이 찢을 수 있다”고 하였다.

### 2) 用途

주로 邪氣가 내부에 있는 癰腫과 痺證을 치료한다. 『靈樞·官鍼』<sup>(35)</sup>에는 “病이 痺氣가 暴發하여 생긴 경우는 員利鍼으로 취할 것”이라 하고, 『靈樞·九鍼論』<sup>(36)</sup>에는 “주로 癰腫과 痺證을 치료한다.”고

(29) 『黃帝內經譯解 (靈樞)·九鍼論 第七十八』. 같은 책 : 580. “五曰鉞鍼, 取法於劍鋒, 廣二分半, 長四寸, 主大癰膿, 兩熱爭者也.”

(30) 『黃帝內經譯解 (靈樞)·四時氣 第十九』. 위의 책 : 203. “徒疔, 先取環谷下三寸, 以鉞鍼鍼之, 已刺而第(1)之, 而內之, 入而復之, 以盡其疔.”

(31) 『黃帝內經譯解 (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78. “六者律也, 律者, 調陰陽四時而合十二經脈, 虛邪客於經絡而爲暴痺者也, 故爲之治鍼必令尖如鼈, 且員且銳, 中身微大, 以取暴氣.”

(32) 『黃帝內經譯解 (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80. “六曰員利鍼, 取法於鼈鍼, 微大其末, 反小其身, 令可深內也, 長一寸六分, 主取癰痺者也.”

(33) 鼈鍼의 鼈(이)는 馬毛 또는 긴 털을 의미한다. 털 중에서도 강인한 것을 鼈라고 한다. 鼈를 취하여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침이 가느다라면서도 강건하여 약간 깊이 찢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4) 『黃帝內經譯解 (靈樞)·九鍼論 第七十八』. 같은 책 : 580. “令可深內也”

(35) 『黃帝內經 譯解 (靈樞)·官鍼 第七』. 위의 책 : 76. “病痺氣暴發者, 取以員利鍼”.

(36) 『黃帝內經譯解 (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80. “主取癰痺者也”

하였고, 『素問·鍼解』<sup>(37)</sup>에서는 “員利鍼은 陰陽을 조절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員利鍼은 深刺를 통해 급성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癰腫과 暴痺증에는 員利鍼을 취한다. 따라서 員利鍼은 邪氣가 深部조직에 있는 實證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虛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7. 毫鍼(호침)

『靈樞·九鍼論』<sup>(38)</sup>에는 “七은 星을 본받았다. 星은 人體의 七竅이니, 外부의 邪氣가 經脈에 침범하여 痛痺(疼痛을 수반한 痺病)를 형성하여 經絡에 머물고 있을 때 이를 鍼으로 치료할 때에는 毫鍼을 사용한다. 호침은 鍼尖이 모기의 입부리 정도의 굵기이며, 조용히 徐徐히 刺入하여, 얇은 부위에 잠시 留鍼하여 邪氣를 내보낸다. 이렇게 하면 正氣가 충실해지고 邪氣는 消散하여 眞氣가 회복된다.”하였다.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침이다.

### 1) 形態

鍼尖이 모기나 등에 부리 같고, 毫毛를 본떴는데, 길이는 1촌6분이다. 『靈樞·九鍼論』<sup>(39)</sup>에는 “毫鍼이니 毫毛에서 法을 취하여 長은 一寸六分이다.”고 하고, 『靈樞·九鍼十二原』<sup>(40)</sup>에는 “毫鍼은 길이 3촌6분(약 90mm)이다.”라 하여, 毫鍼은 毫毛와 같이 가늘고, 鍼尖은 모기 부리처럼 가늘며, 침의 종류에 따라 길이에 대소의 차이가 있다.

호침은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침자도구로, 人體의 혈위를 침자하여 치료목적에 달하게 한다.

근래에 사용되는 호침의 길이는 5분(약 15mm)에서 45촌(약 130mm~170mm)까지로 다양하다. 直徑은 주로 34호(직경 0.22mm), 32호(직경 0.25mm), 30호(직경 0.32mm), 28호(직경 0.38mm), 26호(직경 0.45mm) 등이다.

## 2) 用途

毫鍼은 經絡을 소통시키고, 기혈을 조절함으로써, 經絡의 질병과 內장의 잡병을 고루 치료한다. 곧 人體의 寒熱虛實에 근거하여 일정한 經穴에 보법과 사법을 운용하며, 증상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留鍼함으로써 人體의 기혈과 음양을 조절해준다. 병이 絡脈에 있는 寒熱과 痛痺를 주치한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는 “痛痺를 치료한다.”하였고, 『靈樞·官鍼』<sup>(41)</sup>에는 “病이 痺氣에 의해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毫鍼으로 취할 것”이라 하고, 『靈樞·九鍼論』<sup>(42)</sup>에는 “주로 寒熱과 痛痺가 絡에 있는 것을 다스린다.”고 하였으며, 『素問·鍼解』<sup>(43)</sup>에서는 “毫鍼은 精氣를 복돋아준다”고 하였다.

毫鍼은 가볍게 찔러 서서히 邪氣를 흩어지게 하고 잠시 유침하면 精氣가 충실해지고 邪氣는 消散하여 眞氣가 회복되니, 이렇게 하면 寒邪로 인한 痛痺가 얇은 나뭇잎에 있는 것이 모두 회복된다. 그러므로 痛痺가 제거되지 않는 환자에게는 毫鍼을 응용하여 치료한다. 오늘날의 毫鍼과 같다.

## 8. 長鍼(장침)

『靈樞·九鍼論』<sup>(44)</sup>에는 “八은 風을 본받았다. 八

(37) 『黃帝內經譯解(素問)·鍼解論 第五十四』. 서울: 成輔社. 1980: 395. “六鍼調陰陽”

(38)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앞의 책: 578. “七者星也, 星者, 人之七竅, 邪之所客於經, 而爲痛痺, 舍於經絡者也, 故爲之治鍼, 令尖如蚊蠅喙, 靜以徐往, 微以久留, 正氣因之, 眞邪俱往, 出鍼而養者也.”

(39)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580. “七曰毫鍼, 取法於毫毛, 長一寸六分, 主寒熱 痛痺在絡者也.”

(40)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十二原 第一』. 위의 책: 8. “七曰毫鍼, 長三寸六分”

(41) 『黃帝內經譯解(靈樞)·官鍼 第七』. 위의 책: 76. “病痺氣痛而不去者, 取以毫鍼.”

(42)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580. “主寒熱痛痺在絡者也”

(43) 『黃帝內經譯解(素問)·鍼解論 第五十四』. 앞의 책: 395. “七鍼益精”

風은 인체의 좌우 肘·腋·膝·股의 八關節에 對應한다. 八正<sup>(45)</sup>의 虛風과 八風의 邪氣에 損傷되면 邪氣는 四肢의 關節이나 脊椎·腰椎나 皮膚의 살결사이에 깊이 들어가서 머물며, 體內의 깊은 것에 痺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를 鍼으로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鍼身은 길고, 침침은 예리한 형상으로 하여, 깊이 갖들인 邪氣에 의한 慢性的 痺를 제거하는데 長鍼을 사용한다.”하였다.

### 1) 形態

鍼身이 길고 가늘며 침끝이 예리하다. 環跳鍼이라고도 한다. 기침(碁鍼)을 본떴는데, 길이는 7촌이다. 『靈樞·九鍼論』<sup>(46)</sup>에는 “長鍼은 碁鍼<sup>(47)</sup>에서 法을 취하여 長은 7촌이다.”고 한 바, 長鍼은 침봉은 예리하고, 鍼身은 가늘고 길다.

### 2) 用途

침을 깊숙이 찔러 환부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사기가 깊숙한 부위의 경맥이나 근육에 머물러 있는 고질적 痺證을 주치한다. 『靈樞·官鍼』<sup>(48)</sup>에는 “病이 속에 있을 경우에는 長鍼으로 취할 것”이라 하고, 『靈樞·九鍼論』<sup>(49)</sup>에는 “주로 깊고 오래된 痺證들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靈樞·九鍼十二原』<sup>(50)</sup>에서도 “깊숙한 부위의 痺證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장침은 深刺에 多用되며, 만성관절염이나 좌골신경통 등을 치료한다. 이러한 長鍼은 鍼이 가늘고 긴 특징을 이용하여 깊숙이 찔러 심부조직의 울체를 풀어줌으로서 깊숙한 부위의 痺證을 치료한다.

長鍼으로 痺證을 치료할 때에는 손가락이 침체에 닿지 않도록 하여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 9. 大鍼(대침)

『靈樞·九鍼論』<sup>(51)</sup>에는 “九는 野를 본받았다. 九野는 人體의 關節 및 皮膚 사이에 대응한다. 邪氣가 身體에 침입하여 充滿해지면, 얼굴이나 四肢에 浮腫이 생기고, 津液이 大關節을 통과하지 못하고 停滯된다. 침이 막대처럼 길고 굵으며, 침침은 약간 무디다. 그것으로 사기가 머물러 진액이 대관절을 통과하지 못하고 체류된 것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였다. 곧 大鍼은 鍼尖을 대나무로 갈라 놓은 듯 銳利하게 하고 鍼鋒은 약간 둥글게 하여, 關節 부위에 大氣가 소통되지 못하는 것을 다스린다.

### 1) 形態

끝이 약간 둥글고 봉침을 본떴는데, 침끝이 부러진 대나무처럼 날카롭다. 길이는 4촌(약 100mm)이다. 『靈樞·九鍼論』<sup>(52)</sup>에는 “大鍼은 鋒鍼에서 法을 취하여 그 鍼鋒이 약간 둥글고 길이는 4촌이다.”고

(44) 『黃帝內經譯解 (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79. “八者風也, 風者人之股肱八節也, 八正之虛風, 八風傷人, 內舍於骨解腰脊節腠理之間, 爲深痺也. 故爲之治鍼, 必長其身, 鋒其末, 可以取深邪遠痺.”

(45) 八正之虛風의 八正은 立春, 立夏, 立秋, 立冬, 春分, 秋分, 夏至, 冬至 등의 八個節氣이고, 虛風은 四時八節의 反常氣候를 말한다.

(46) 『黃帝內經譯解 (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80. “長鍼, 取法於碁(1)鍼, 長七寸”

(47) 碁鍼은 옷을 기을 때 사용하는 長鍼이다. 設文金部에 “鍼은 碁鍼이다”고 하였고, 管子輕重乙에 “여자는 반드시 一刀, 一錐, 一箴, 一鍼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房注에 “鍼은 長鍼이다”고 하였다.

(48) 『黃帝內經 譯解 (靈樞)·官鍼 第七』. 위의 책 : 76. “病在中者, 取以長鍼”.

(49) 『黃帝內經譯解 (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80. “八曰長鍼, 取法於碁鍼, 長七寸, 主取深邪遠痺者也.”

(50) 『黃帝內經 譯解 (靈樞)·九鍼十二原 第一』. 위의 책 : 8. “可以取遠痺”

(51) 『黃帝內經譯解 (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79. “九者野也, 野者, 人之節解皮膚之間也, 淫邪流溢於身, 如風水之狀, 而溜不能過於機關大節者也. 故爲之治鍼, 令尖如挺, 其鋒微員, 以取大氣之不能過於關節者也.”

(52) 『黃帝內經譯解 (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80. “九曰大鍼, 取法於鋒鍼, 其鋒微員, 長四寸, 主取大氣不出關節者也, 鍼形畢矣. 此九鍼大小長短法也.”



하였다. 그러므로 大鍼은 모양이 鋒鍼과 비슷하지만 그 모양은 杖과 같아서 침체가 약간 굵고, 침 끝은 약간 둥근 편이다.

2) 用途

주로 관절 부근에 자침하여 水氣를 제거하므로 관절의 水腫을 치료한다. 『靈樞·九鍼十二原』<sup>(53)</sup>에서 “관절의 水氣를 제거한다.”하였고, 『靈樞·官鍼』<sup>(54)</sup>에는 “病이 水腫으로 인하여 관절에 氣血이 잘 流通되

지 못 할 경우에는 大鍼으로 取할 것”이라 하고, 『靈樞·九鍼論』<sup>(55)</sup>에는 “주로 大氣가 관절에서 배출되지 않는 것을 다스린다.”하였다. 鋒鍼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침봉이 더욱 둥글어 물을 뺄 때(防水) 사용한 다. 全身水腫 및 腹中癥瘕 등의 치료에도 사용된다.

大鍼은 水氣를 제거하는 古代의 鍼으로서, 후세 에는 ‘火鍼’으로 사용한다. 관절부근에 鍼을 놓을 때는 筋肉 韌帶 및 神經 血管을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Table 1. 九鍼十二原篇 과 官鍼篇에서의 구침 형태

九鍼名	길이	형태	九鍼十二原	官鍼
鑱鍼 (shear needle)	1.6寸	a pricking instrument like an arrowhead with a sharp tip, the same as a chisel needle or sagittal needle	去瀉陽氣	病在皮膚 無常處者
圓鍼 (round-pointed needle)	1.6寸	a cylindrical instrument with the shaft 1.6 cun long and an oval tip	瀉分肉氣	病在分肉
鍤鍼 (spoon needle)	3.5寸	a thick shaft and a slightly sharp round tip like common millet (기장,黍) or italian millet (조,粟)	按脈勿陷	病在脈 氣少
鋒鍼 (lance needle)	1.6寸	three-edged needle, the same as a lancing needle	發痲疾	病在經絡 痲痺
鈹鍼 (stiletto needle)	4寸 廣0.25寸	an instrument like a double-edged sword	取大膿	病爲大膿
圓利鍼 (round-sharp needle)	1.6寸	a needle with thin shaft and a somewhat enlarged and sharp round tip	取暴氣	痺氣暴發
毫鍼 (filiform needle)	3.6寸	a type of fine needle of varying length most commonly used in performing acupuncture at present	取痛痺	痺氣痛而不去
長鍼 (long needle)	7寸	long in length used for deep puncture	取遠痺	病在中
大鍼 (large needle)	4寸	a needle with a long and thick shaft and a somewhat round tip	瀉機關水	病水腫不通關節

III. 九鍼圖의 형태별 변천과정

九鍼圖는 구침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형태의 차이를 구분해 보는데 도움이 된다. 九鍼의 형태별 변천과정은 그림을 통해 형태별 특징이 있어 보이는 『鍼灸大成』<sup>(56)</sup>과 『類經圖翼』<sup>(57)</sup>, 『醫宗金

(53) 『黃帝內經 譯解 (靈樞)·九鍼十二原 第一』. 위의 책 : 8. “大鍼者, 尖如挺, 其鋒微員, 以瀉機關之水也”  
 (54) 『黃帝內經 譯解 (靈樞)·官鍼 第七』. 위의 책 : 76. “病水腫不能通關節者, 取以大鍼”  
 (55) 『黃帝內經譯解 (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80. “主取大氣不出關節者也”  
 (56) 楊繼洲 撰. 鍼灸大成校釋. 서울 : 醫聖堂. 1993 : 3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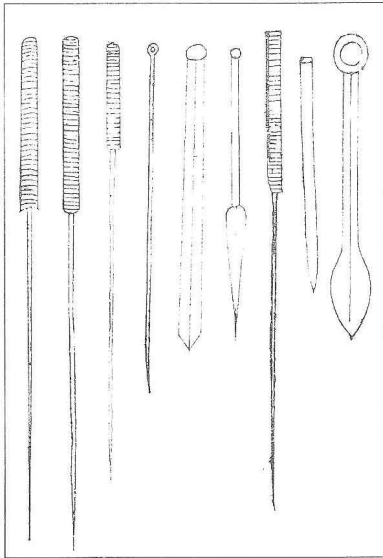


Fig. 4. 『醫宗金鑑』의 九鍼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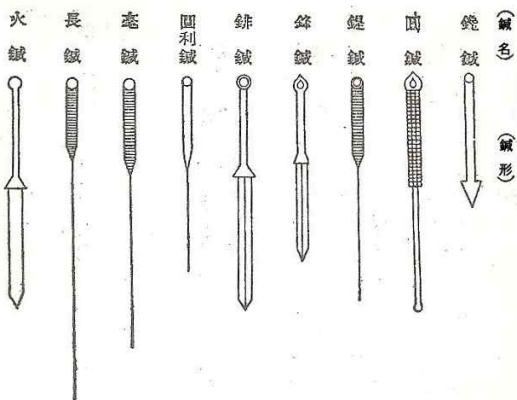


Fig. 5. 『中國鍼灸學』의 九鍼圖

#### IV. 총괄 및 결론

九鍼은 한의학의 고전에서 사용해온 침의 다양한 도구로서, 그 이름에 따라 형태가 각각 다른 9종의 鍼을 말하는 바, “天地의 四時陰陽과 人間의 相應原理에 맞게 九鍼<sup>(61)</sup>이라 이름 하니,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에 적절

히 대처할 수 있는 鍼法의 妙用이 이곳에 있다<sup>(62)</sup> 할 것이다. 근래 침법의 활용이 두루 하지 못함은 우주자연의 변화원리에 대응한 九鍼의 이해 부족에 있다고 보며, 향후도 구침의 새로운 이해와 폭넓은 응용을 통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질병의 출현에 미리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醫者의 기본요건이라 본다.

이러한 九鍼은 종류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또 相異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상에서 여러 가지 질병치료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주요 작용은 인체의 음양을 조절하고, 경락을 소통시키고, 기혈순환을 조절하여 통증을 제거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등 각각의 종류마다 그에 상응한 주치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서양의학이 해부학의 발전이후로 발전의 폭을 달리하여 왔다고 본다면, 九鍼은 내경 이후 역사의 흐름과 과학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하기에 편한 침으로 대체되거나 개선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왔는데, 그 중 현대 임상에서는 호침과 장침, 삼릉침 등이 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침(毫鍼)은 매우 가는 침으로 오늘날까지 침구임상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피침(鈹鍼)은 끝이 칼날처럼 예리하여 癰疽의 고름을 제거하는데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수술 칼로 대체되고 있으며, 봉침(鋒鍼)은 오늘날의 삼릉침으로 개선되었다. 九鍼 중에서 원침(員鍼)과 시침(鍅鍼)은 안교(按蹻)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근래 들어 이러한 침은 변화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용도에 따라 피부를 자극하는 매화침(梅花針), 皮內鍼으로 皮下에 자입하는 피하매침(皮下埋針), 침과 뜸의 효과를 겸한 溫鍼과 火鍼, 전기자극을 겸한 電鍼, 약과 침의 효과를 겸한 藥鍼 등과 외과적 처치요법인 도침요법 등으로 개발되어 가면서 활용의 빈도를 넓혀가고 있다.

이에 저자는 오늘날 침구임상영역의 확대현상을

(61) 張介賓. 『類經 下(類經 十九卷)』. 서울 : 대성문화사. 1990 : 423 “九鍼之義 應天人”(素問 鍼解篇)

(62) 楊維傑. 『黃帝內經 譯解(靈樞)·官鍼 第七』. 앞의 책 : 75. “九鍼之宜 各有所爲, 長短大小, 各有所施也”

의미 있게 생각하며, 황제내경에 근거한 九鍼의 고전적인 이해를 통해 임상활용의 폭을 넓혀가기 위한 목적으로, 『靈樞·九鍼論』 속에 녹아있는 자연과 인간의 상응관계와 명명의 근거, 구침형태의 발전과정을 문헌에 근거해서 확인해 보고, 九鍼의 형태와 용도를 정리하여 九鍼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내경』에 “허(虛)하고 실(實)한 것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九鍼이 가장 妙하다”<sup>(63)</sup>고 한 것은 각각 그 침에 해당하는 적응증이 있기 때문이다.

**참침(鑱鍼)**은 길이가 1寸6分으로 침두가 크고 鍼尖이 예리하다. 돌침(砭石)에서 진화 발전한 것으로 보며, 熱病放血에 사용되는데, 주로 머리와 몸에 열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원침(員鍼)**은 길이가 1寸6分으로 침 끝이 달걀 모양과 같이 생겼다. 분육(分肉)에 기가 몰린 데 사용되는 침으로, 혈위를 가볍게 마사지하여 肌肉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시침(鍔鍼)**은 길이가 3촌5분으로 鍼身은 크고 끝은 둥글고 예리하다. 경맥을 눌러 안마하되, 肌肉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자극하여 경맥의 기를 제대로 돌게 한다. 正氣를 소통시키고 邪氣만 빠져나오도록 한다. 경맥의 氣가 허약한 데는 이 鍔鍼을 쓰는 것이 좋다

**봉침(鋒鍼)**은 길이가 1寸 6分으로, 오늘날의 삼릉침과 같이 鍼尖의 三面이 칼처럼 예리하다. 日명파침(破鍼)이라고도 하며 열을 내리고 피를 빼어 고질병을 치료한다.

**피침(鍅鍼)**은 길이는 4촌으로, 鍼尖이 칼날처럼 예리하여 大膿을 치료한다. 종기를 절개하여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鍼으로서, 종기가 완전히 익었을 때 사용해야 한다.

**원리침(員利鍼)**은 길이가 1寸6分으로, 털끝같이 가늘고 둥글면서 예리하다. 침침은 둥글면서 날의 가운데는 약간 굵다. 음양을 고르게 하며, 갑자기 생긴 비증(痺證)을 없애는 데 사용한다. 員利鍼은

邪氣가 深部조직에 있는 實證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虛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호침(毫鍼)의 길이는** 『靈樞·九鍼論』에서는 一寸六分이라 하고, 『靈樞·九鍼十二原』에는 길이가 3寸6分이라고 하였다. 이는 호침의 길이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호침의 끝은 모기나 등에의 주둥이같이 날카로우며 천천히 놓고 오래 꽂아 둔다. 경락을 소통시키고, 기혈을 조절함으로써, 경락의 질병과 내장의 잡병을 고루 치료한다. 곧 인체의 寒熱虛實에 근거하여 일정한 經穴에 보법과 사법을 운용하며, 증상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留鍼함으로써 인체의 기혈과 음양을 조절해준다. 병이 絡脈에 있는 寒熱과 痛痺를 주치한다.

**장침(長鍼)**은 길이가 7寸이고 침 끝이 예리하다. 環跳鍼이라고도 한다. 침을 깊숙이 찔러 환부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사기가 깊숙한 부위의 경맥이나 근육에 머물러 있는 고질적 痺證을 주치한다. 비증이 몸의 깊숙한 부위 곧 관절부위나 허리등뼈에 몰린 데는 장침(長鍼)이 좋다.

**대침(大鍼)**은 길이는 4寸이고 끝은 못과 같으며 침침은 약간 둥글다. 모양이 鋒鍼과 비슷하지만 침봉이 더욱 둥글어 물을 뺄 때(防水) 사용한다. 주로 관절 부근에 자침하여 관절의 水腫을 치료한다. 病이 水腫으로 인하여 관절에 氣血이 잘 流通되지 못 할 경우에는 大鍼으로 치료한다 하여, 고대에는 水氣를 제거하는데 사용하였으나, 근래에는 주로 火鍼으로 사용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九鍼圖에서 각 종류별 형태의 변천과정을 비교 관찰 해본 결과, 九鍼은 문헌별 시대별로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나, 이는 구침의 제작시에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든 것에 불과 할뿐 근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오늘날 양방의료계의 주요 수술도구도 이러한 의학발전 과정에서 해부학과 현미경 등이 급격히 발달되면서 외과의학의 발전을

(63) 金達鎬, 金重漢. 『注解補注 黃帝內經 靈樞·九鍼十二原 第一』. 서울 : 의성당. 2002 : 10. “虛實之要 九鍼之妙”

주도하는 신의료기술의 치료도구로 변화 발전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근래 일회용 침이 등장하면서 鍼 等 치료도구의 위생관리 면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반대로 한방 침구임상에서 치료도구의 제한 된 사용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한의학 치료영역의 확대의 차원에서 크게 검토 되어야할 문제라고 본다.

의학의 발전은 역사의 발전과 그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니, 고대의 九鍼이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 그대로 머물러 적용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고대에 사용된 간단한 모양의 砭石이 여러 과정을 거쳐 질병의 치료도구로 이용하여 오다가 이것이 발전하여 九鍼요법이 나왔고, 다시 시대변화에 따라 장단대소의 각종 鍼과 여러 가지의 新鍼 요법 의료기로 발전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九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늘 재현되어져 폭 넓게 활용되어져야 할 한의학의 기본치료도구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楊維傑. 黃帝內經·素問 譯解. 서울 : 成輔社. 1980.
2. 楊維傑. 黃帝內經·靈樞 譯解. 서울 : 成輔社. 1980.
3. 楊繼洲 撰. 鍼灸大成校釋. 서울 : 醫聖堂. 1993.
4. 張介賓. 類經圖翼. 臺北 : 文光圖書有限公司. 1977.
5. 清, 吳謙 等編. 醫宗金鑑 下冊.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6.
6. 莊育民. 中國鍼灸學. 香港 : 上海印書館. 1976.
7.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古今鍼具圖. 서울 : 법인문화사. 2005.
8. 張介賓. 類經 下. 서울 : 대성문화사. 1990.
9. 金達鎬, 金重漢. 注解補注 黃帝內經 靈樞. 서울 : 의성당. 2002.
10. 손인철, 김유리, 안성훈, 김재효. 醫宗金鑑 刺灸心法要訣 중의 九鍼歌를 통해 본 九鍼의 이해. 한국전통의학지. 2010 ; 18(2) : 119-34.